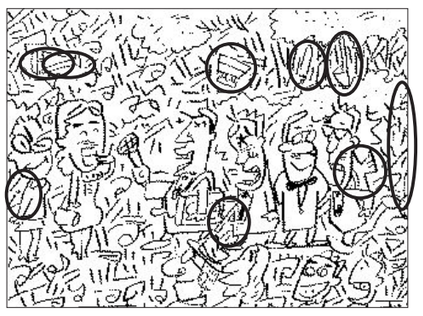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110 >

찾아보세요 칫솔, 못, 담배 파이프, 바늘, 고추, 열대어, 다리미, A자, 펜촉

골프란?

△골퍼
-90대 치는 골퍼 : 남 못 가르쳐서 안달 난다.
-80대 치는 골퍼 : 먼저 물어봐야 알려준다.
-70대 치는 골퍼 : 사정해서 물어보면 겨우 알려준다.
-프로골퍼 : 물어보면 돈 받고 알려준다.
△캐디
-비기너 캐디 : 친절하고 공 찾는 데 헤매고 잘 뛴다.
-두 달 된 캐디 : 클럽을 두 세 개씩 갖다준다.
-6개월 된 캐디 : 엉뚱한 공만 찾아다 준다.
-1년 된 캐디 : 먼 산 보면서도 공은 잘 찾고 거리도 정확하다.
-2년 된 캐디 : 가끔 손님 휴대전화를 쓴다.



지난주 정답

화살, 펜촉, 고추, 못, 슬리퍼, 열대어, 다리미, 돛단배, A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이계택 〈광주시 북구 오치동〉 박은영 〈광주시 서구 벽진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고종 23년(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

고조선의 8조법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는 부분이 나온다. 부여의 법률에서도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는 대목이 나와 노비의 오랜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엄격한 신분제와 봉건제의 기틀 위에 쌓아진 조선의 600년의 역사는 19세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상공업의 발전으로 '사공농상'의 신분제에서 천대받던 계급이 부를 축적하면서 권력을 키워가고, 서양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대외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은 급격한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을 맞이한다.

양반계급의 몰락으로 해이해진 신분제와 격렬해지는 농민들의 반란으로 고종 23년인 1886년 2월6일, 마침내 노비세습제 폐지가 공포된다. 이후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노비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견고한 신분제에 처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때 부터다. 노비들은 의병에 나서면서 나라에 공을 세워 면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후 나라의 살림이 궁핍해지면서 양곡을 바치고 신분 상승의 대가를 받는 '납속책'이 강화되면서 면책을 받는 노비가 늘었다.

조선 후기 들어 양반이 몰락하고, 상공업을 통해 돈을 쥐게 된 이들이 늘면서 돈만 있으면 노비 신분에서 행방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신분제는 점차 명분을 잃어가면서 양반의 지배에 대항하는 사회적 반란도 심화됐다.

매천 황현이 19세기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담은 '오하기문'(梧下記聞)에는 "천한 자가 주인을 위협하여 노비문권을 불사르고 양인(良人)이 됨을 강제로 승인케 하거나 혹은 그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과 매를 치기도 했다. 노비를 가진 자들은 불살라지는 노비문권을 보면서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시 노비들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노비세습제를 폐지한 조선의 고종 황제.

고종황제는 결국 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를 공포하면서 전통적 신분질서에 따른 봉건사회의 붕괴를 알리게 된다. 조선 말 오랜 악습인 신분제도의 폐지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된 근대국가로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명절 건강하게 나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명절, 음주에 과로까지 겹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황금 설연휴 잘 먹고 즐겁게 지내는 요령을 알아봅시다.

▲급체·소화불량
급체 후에는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기가 심한 경우엔 한두 끼 정도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위장의 휴식과 회복에 좋습니다. 매실차는 소화에 도움이 되며, 꿀이나 설탕을 따뜻한 물에 진하게 타서 마시면 급체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자리의 '합곡혈'이나, 무릎 아래 손가락 네 마디 정도에서 약간 바깥쪽에 위치한 '족삼리혈'을 눌러줘도 좋습니다.

▲변비
소화가 잘되는 쌀밥과 삶은 야채, 요구르트, 생선 등을 많이 드세요. 생채, 우유, 설탕, 술, 콜라, 차갑거나 기름진 음식은 대장경련을 일으키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2월 30일 丙子)

子 36년생 눈을 낮춰서 현실을 보라. 48년생 욕심을 내지 마라 좋은 날이다. 60년생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72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84년생 뜻밖의 환심은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10, 27

丑 37년생 가정과 마음의 중중한 고통이 있다. 49년생 신사나 문서에 눈물 날까 두렵다. 61년생 주변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하라. 73년생 부부간의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85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04, 45

寅 38년생 옛 일이 괴로우니 다시한번 살펴보라. 50년생 가정이 소란하니 조용히 해결하라. 62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흉이 복으로 변하는 형상이다. 74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13, 26

卯 39년생 미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보내라. 51년생 해묵은 일은 먼지처럼 날리고 화해하며 지내라. 63년생 다툼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 하라. 75년생 연인과 접속이 된다. 행운의 숫자:06, 37

辰 40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라. 52년생 합자 동업 신규 투자는 深思熟考후 결정하라. 64년생 건강이 수상하니 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새 문서를 잡고 가내는 경사로다. 행운의 숫자:08, 33

巳 41년생 겉으로만 어려울 뿐 행동하면 쉬우리라. 53년생 사랑은 있으나 만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로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득리한다. 77년생 겉은 화려하나 속내는 虛하니 실속 있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05, 25

午 42년생 겉으로는 싫어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54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보금자리를 매만져라 사랑이 보인다. 78년생 오늘은 밖에서 자동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19, 29

未 4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55년생 우두머리가 둘이니 선택을 잘하라. 67년생 의외의 得財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79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니 준비하고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0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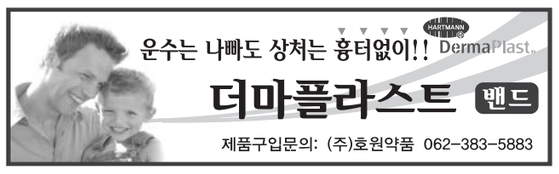
申 44년생 강물이 순류하니 편안한 하루다. 56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목 하라. 68년생 튼튼한 제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80년생 자신을 낮추면 자신은 오르고 득 또한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2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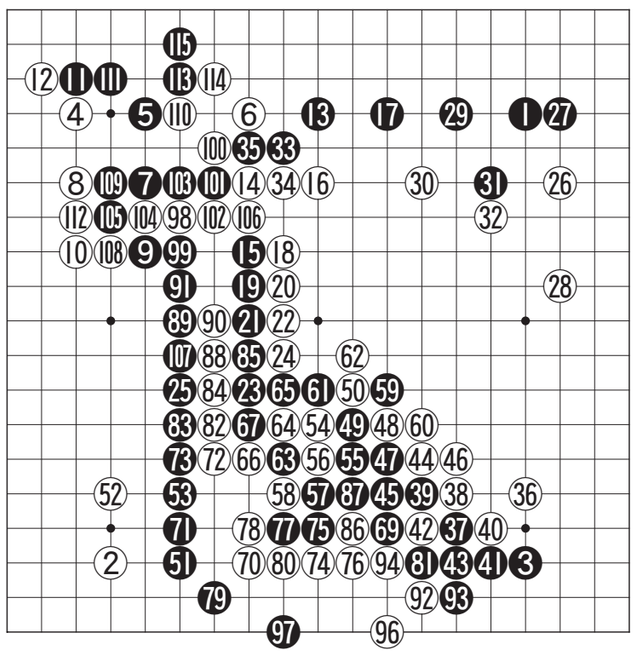
酉 45년생 협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근자에 만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69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81년생 이성 보다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02, 26

戌 46년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8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70년생 진행하던 일이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82년생 집안의 평화는 참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15, 36

亥 47년생 호수에 배를 띄우나 행운은 반반이다. 59년생 지출을 가장과 의논하라. 71년생 과도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하리라. 83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消息이 東에서 온다. 행운의 숫자:09,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5회 KBC사장배 유단자부 결승전

이건희군 우승 총보(1~115)

白 선민호 (효덕초등 6) 黑 이건희 3단 (월봉초등 5)

유단자부는 초등학생 중에서 한국기원에서 인정한 유단자들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몰려 있는 어린이 바둑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은 특히 주최측인 광주방송에서 녹화 방영하여 이지역 바둑팬들에게도 소개가 된 의미있는 한판이 되었다.

결과는 하변에 침투한 백 대마를 섬멸한 이건희군이 쾌승을 거두었지만 패배한 선민호군도 오랫동안 바둑공부를 중단한 상태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개가를 올려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포석은 흑 33, 35로 뚫어 상변의 백 한점을 차지한 흑의 우세. 선민호군은 그 대가로 우변에 큰 집을 마련하고자 백 38부터 50까지 강력하게 막아갔으나 포위망이 엉성했고 그 와중에 흑도 하변을 키워 흑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그런데 이건희군이 백 54로 몰았을 때 흑 55로 잇는 욕심을 부려 하변 백 대마의 사활에 승부가 걸리게 된다. 그러나 백 대마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백 76이 통한의 패착이 되었다. 이 수로 먼저 79에 둔 다음 76에 두었으면 백 대마가 잡힐 일은 없었다. 흑 79가 우승컵을 안은 승착이 되었다. 흑 115 수 끝. 흑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상훈 프로대회 첫 우승

한상훈 2단이 프로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한상훈은 5일 서울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기 전자랜드배 청룡왕전 결승에서 김승재 초단을 상대로 124수만에 불계승했다.

한상훈은 상변과 좌변에서 크게 이기며 초반 거센 공격을 퍼부은 김승재를 무력화시켰다.

2006년에 입단한 한상훈은 왕위전 도전자 결정전 진출,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에 진출하는 등 신예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1회이며, 상금은 우승1천만원, 준우승 300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92>

Where do you like to eat?

어디 가서 식사할 건가?

A : Where do you like to eat?
B : Ssam Bar's. Do you think Ssam Bar's is very good?
A : Yah, but I couldn't eat there every day.
B : That's true.

A : 자네, 어디 가서 식사할 건가?
B : 쌈밥집에 갈려고 하는데. 쌈밥집이 정말 좋은데, 자네는?
A : 좋지, 하지만 날마다 거기로 갈 수는 없지.
B : 그렇기도 해.

* 내가 내일 출근해야 할 것 같은가?
= Do you think I should go to work tomorrow?
* 맥도널드, 좋아?
= Do you think that McDonald's is very good?
* 새 직장, 맘에 들 것 같은가?
= Do you think you'll like your new job?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092>

中身(なかみ)はなんですか?

내용물은 뭡니까?

A : あのう、この小包(こづつみ)、日本に送(おく)りたいんですけど。
B : 中身(なかみ)はなんですか?
A : 寒(さむ)いので、両親(りょうしん)に着(き)てもらおうと思って。
肌着(はだぎ)なんですけど。
B : そうですか。じゃ、この用紙(ようし)に送(おく)り先(さき)と價格(かかく)を
記入(きにゅう)してください。

A : 저, 이 소포 일본에 보내고 싶은데요.
B : 내용물은 뭡니까?
A : 추우니까 부모님 입으시라고요. 내의입니다.
B :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용지에 보내는 곳과 가격을 기입해 주세요.

小包(こづつみ) : 소포
中身(なかみ) : 내용물
用紙(ようし) : 용지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69>

我一边吃饭一边看报纸

나는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본다

A: 我平时一边吃饭一边看报纸。
Wǒ píngshí yìbiān chī fàn yìbiān kàn bàozhǐ.
워 핑스 이비엔 츠 판 이비엔 칸 빠오즈.

B: 那是不好习惯.
Nà shì bù hǎo xíguàn.
나 스 뿌 하오 시꾸안.

A: 是吗?
shì ma?
스 마?

B: 是的, 你以后要注意.
shì de, Nǐ yǐhòu yào zhùyì.
스 더, 니 이호우 야오 쭈이.

A: 난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봐.
B: 그건 좋지 않은 습관이야.
A: 그래?
B: 응, 다음엔 주의해야 돼.

平时 [píngshí] 평소
习惯 [xíguàn] 습관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79>

有耶無耶(유야무야)

있을 유, 어조사 야, 없을 무, 어조사 야

유야무야(有耶無耶)는 마음이 유(有)·무(無) 양쪽에 쏠려 주저하면서 결정을 못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즈음은 어느 쪽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채로 있는 상태를 비유한다.

불교에는 사구분별(四句分別)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 네 가지 시점(視點)을 세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상(事象)에 대해 있다(有)고 보는 시점과 없다(無)고 보는 시점, 그리고 있으면서(有)도 또한 없다(無)고 보는 시점,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시점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명제(命題)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면 결국 대답을 하지 않는다. 즉 '유야무야'가 되는 것이다. '유야무야'란 "있느냐? 없느냐?"는 선적(禪的)인 질문이다. 이런 뜻에서 일반적으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론 없는 상태를 유야무야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일본어에서도 흐지부지한 상태를 '우야무야'(うやむや)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유야무야'와 발음이 흡사하여 '유야무야'의 어원이 일본어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는 불교에서 유래 된 인식방법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